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제 13 차 연차 총회
2013 년 11 월 5 일~6 일, 서울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아시아 비즈니스 대화”

행사후원기관: 한국거래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주제: “북아시아의 기업 지속가능성과 책임 투자”

1 일차: 2013 년 11 월 5 일(화)

오전 사회자: 더글러스 헨크, AEGON Asia 회장 겸 대표이사 사장, 홍콩. ACGA 부회장

오전 9:00 – 9:10 환영사

- 린다 짜오 양 대사, ACGA 회장

오전 9:10 – 9:30 여는 말

-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오전 9:30 – 9:45 축사

- 국민수, 법무부 차관

오전 9:45 – 10:45 전체회의 1: 역사적 관점에서 본 북아시아 기업 지배구조

전체회의 1 에서는 1990 년대 말 이후 북아시아의 기업 지배구조 발전 과정을 개괄하면서 주요 개선점들을 부각시켜 보고 추진된 개혁을 세계 다른 곳과 비교하게 된다. 이런 논의에 함축된 질문은 과연 기업 지배구조가 기업 및 국가의 장기적인 경쟁력에 핵심적인 지 여부이다. 본 세션에서는 아울러 한국에서의 기업 지배구조 발전 과정을 요약하고 미래 개혁 방향을 조망할 예정이다.

- 제이미 앨런, ACGA 사무총장, 홍콩
- 김순석,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오전 10:45 – 11:15 휴식

오전 11:15 – 오후 12:30 전체회의 2: 기업 지배구조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한국의 시각

한국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업계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그리고 심지어 K-Pop 등 세계 최고의 경쟁자들을 키워냈다. 이들의 강점은 무엇인가? 이들의 최대 약점은 무엇이며, 잠재적 리스크는 어디에 있는가? 본 세션에서 한국 발표자들이 한국 특유의 기업 지배구조와 실천에 초점을 맞추면서, 재벌이 세계 유수 기업들과 효과적으로 경쟁하는 데 이런 특징들이 얼마 만큼의 역할을

했는지를 평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역학관계는 앞으로 영원히 지속될 것인가? 한국 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 성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회자:

- 김영준, Milbank, Tweed, Hadley & McCloy 파트너변호사, 홍콩

발표자:

- 박경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아시아기업지배구조연구소 부소장
- 신석훈, 한구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프리 D. 존스, 김앤장 변호사

오후 12:30 – 1:30 **오찬 – 콘래드 호텔 2층 Zest Restaurant**

오후 사회자: 유에린 T. 양, IMC Industrial Group 운송물류 부문 이사, 싱가포르

오후 1:45 – 2:30 **기조연설: 북아시아의 지정학적 및 안보 상 도전과제**

북아시아의 잠재 위기 요인에는 남북한 간 반복되는 긴장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계속되는 역사적 원한 관계는 중국과 일본, 남북한과 일본, 때로는 중국과 한국 사이 이웃국가로서의 선의가 약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지정학적 역학관계가 이 지역이 지속적인 경제 번영을 이루는 데 얼마 만큼 위협이 되고 있는가? 북아시아 국가들 간 보다 긴밀한 비즈니스 관계가 형성되면 지정학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 지역 안보에 있어 최상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는 각각 무엇인가?

발표자:

- 피터 벅, 아시아재단 한국지부 대표

오후 2:30 – 3:15 **전체회의 3: 한국 기관투자자와의 대화**

국내 투자자들이 한국 상장기업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지에 대한 격식없는 대화가 이루어진다. 투자자들은 주요하게 발전한 분야는 무엇이며, 지속되는 리스크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투자자들은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기업 지배구조를 얼마 만큼 고려하는가? 한국 시장은 타 아시아 시장보다 높은 할인율의 피해를 계속 받아야 하는가?

사회자:

- 김준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제처 부처장

발표자:

- 박건영, 브레인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장 겸 CIO
- 존 리, 라자드코리아 전 이사

오후 3:15 – 3:45 **휴식**

오후 3:45 – 4:30 토론: “모든 기업은 자체적인 기업 지배구조 체계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옥스포드대학 식 토론으로 진행되는 본 세션에서는 입장이 분명한 두 명의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들이 ‘상장기업은 자체적인 기업 지배구조 체계를 선택할 자유가 더 많아야 하는지’라는 뜨거운 쟁점을 놓고 서로를 향해 지적 사격을 가하게 된다. 참가자들은 전자 투표를 통해 최종 승자를 가려내는 데 참여할 수 있다.

사회자:

- 마이클 쳉, ACGA 중국 및 홍콩 연구담당이사

토론자:

- 프랭크 커티스, RPMI RAILPEN Investments 기업 지배구조 총괄, 런던
- 손 코크란, CLSA 한국지사 리서치센터장

오후 4:30 – 5:45 전체회의 4: 중국의 기업 지배구조 리스크

중국은 지난 10 여년 사이 여러 개혁조치를 추진하여 상장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했으며, 기업 공시, 투자자 보호 그리고 규제 집행에 대한 기본적인 룰들을 도입했다. 그러나 현대적인 자본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 지배구조 리스크는 놀랍지 않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본 세션에서는 시진핑 새 지도부 출범이 중국 자본시장 발전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지, 외국 포트폴리오 투자자가 중국 본토의 국영 및 민간 기업에 투자할 때 어떠한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ESG) 리스크에 주의해야 하는지, 외국인 직접 투자자들이 합작을 관리할 때 어떠한 도전과제에 직면하게 되는지 등, 이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다루게 된다.

사회자:

- 크리스토퍼 리히, ACGA 편집위원, 홍콩

발표자:

- 로버트 월, Deacons 파트너변호사, 홍콩
- 슈 쓰타오, Hunan Valin Steel 독립이사 겸 The Economist Group 중국대표, 베이징
- 멜리사 브라운, Daobridge Capital 파트너, 홍콩

오후 5:45 – 6:00 1 일차 총회 폐회

오후 6:00 – 7:00 칵테일 리셉션 – Park Ballroom 로비

오후 7:00 – 9:00 만찬 - 서울 콘래드 호텔 5 층 Park Ballroom

기조연설: 강태진, 삼성전자 미디어솔루션센터 전무 (연설주제 추후 확인)

2 일차: 2013 년 11 월 6 일(수)

오전 9:00 – 9:15 여는 말 및 1 일 차 내용 요약

로버트 모리슨, Kiwibank 회장, 웰링턴. ACGA 위원

연속 워크샵

오전 9:15 – 10:45 워크샵 1

기업 워크샵:

세계 기업 지배구조 트렌드가 아시아 기업에 미치는 영향

기업 지배구조가 투자 이슈로 점차 인식되고 있고 최근 들어 “책임 투자”가 부상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상장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대한 세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아시아 기업들의 지배구조 수준을 어떻게 측정하고 있으며 어떠한 주요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는가? 분석 시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동등하게 고려하는가? 투자자들이 내린 결론이 투자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또한 이런 노력이 아시아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사회자:

- 스티븐 브라운, Noble Group 기획담당이사, 홍콩

발표자:

- 데이빗 스미스, Aberdeen Asset Management Asia 기업 지배구조 총괄, 싱가포르
- 박유경, APG Asset Management Asia, 아시아 지속가능성 및 기업 지배구조 담당이사, 홍콩

투자자 워크샵

북아시아 시장 위임투표 관련 도전과제 해결

지난 5 년 간 여러 규제 개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아시아 자본시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책임있게 위임투표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기관투자자들은 여전히 여러 도전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중국, 일본, 한국과 대만에서 투표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는 데 주로 어떠한 장애물이 있는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규제 개혁이 필요한가? 아울러 상장기업들은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주들의 투표권 행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가?

사회자:

- 제라드 페렌바흐, 변호사, PGGM Investments 선임 책임 투자 자문, 네덜란드 자이스트

발표자:

- 존 프랭크, ISS 부장, 싱가포르
- 크리스 닉슨, Broadridge 고객서비스 아시아 총괄, 도쿄

오전 10:45 – 11:15 휴식

오전 11:15 – 12:45 워크샵 2

기업워크샵

한국 기업의 ESG 기준 및 이행 개선방안

한국 상장기업들은 지속가능성 그리고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ESG) 정보공개에 접근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기업이 정보공개를 하게끔 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어떤 기업들이 선두에 있는가? 예를 들어 공급사슬 관리 혹은 기업 지배구조 공시(환경이나 사회공헌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등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 분야 전문가인 본 세션 발표자들이 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자:

- 와이신 찬, 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아시아태평양 기후변화전략담당이사, 홍콩

발표자:

- 류영재, SUSTINVEST 대표이사
- 오덕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 / ESG 평가팀장

투자자 워크샵

북아시아 시장 투자자 참여(engagement)의 미래

북아시아 시장이 점차 중요한 투자 대상이 되어감에 따라 상장기업과 투자자 사이 대화와 참여(engagement)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북아시아 지역의 서로 다른 법적, 문화적, 정치적 조건을 고려한 최상의 효과적인 상호작용 전략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게 된다. “행사 주도적”인 행동주의 전략이 기업과 시장에 장기적인 영향을 끼치는가? 보다 친근하고 더욱 “시스템 주도적”인 참여 이니셔티브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이를 제대로 하기 위해 투자자들은 어떠한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가?

사회자:

- 찰스 리, ACGA 북아시아 연구담당이사

발표자:

-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 히로아키 토야, LIM Advisors 총지배인, 도쿄

12.45pm – 1.30pm 오찬 – 콘래드 호텔 2 층 Zest Restaurant

총회 종료